일개 간호대학생의 역경지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예진[1] · 이신범[2] · 장채은[3] · 최진국[4] · 황혜진[5]

[1]삼육보건대학교, 부교수 · [2·3·4·5]삼육보건대학교, 학생

The Effect of Adversity Quotient Profile, Self-leadership and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on the Clinical Competence

Ye Jean, Kim[1] · Sin Bum, Lee[2]

Chae Eun, Jang[3] · Jin Guk, Choe[4] · Hye Jin, Hwang[5]

[1]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Health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2·3·4·5]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Health University, Student

한국간호연구학회지『별책』 제3권 제3호 2019년 9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3, No. 3, September 2019

한국간호연구학회지 제3권 제3호 2019년 9월 ISSN(Print) 2586-2057 · ISSN(Online) 2671-5686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3, No. 3, 75-84, September 2019 https://doi.org/10.34089/jknr.2019.3.3.75

일개 간호대학생의 역경지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예진[1] · 이신범[2] · 장채은[3] · 최진국[4] · 황혜진[5]

[1]삼육보건대학교, 부교수 · [2·3·4·5]삼육보건대학교, 학생

The Effect of Adversity Quotient Profile, Self-leadership and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on the Clinical Competence

Ye Jean, Kim[1] · Sin Bum, Lee[2]
Chae Eun, Jang[3] · Jin Guk, Choe[4] · Hye Jin, Hwang[5]

[1]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Health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2·3·4·5]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Health University, Student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rehend the relationship among adversity quotient, self-leadership and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experience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the influential factors to clinical competence. **Methods** :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84 nursing students in the third and fourth grade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Results** :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clinical experience on clinical competence was 3.51, adversity quotient was 3.35, self-leadership was 3.60 and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experience was 3.01 respectively.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were shown in the order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adversity quotient, self-leadership, grade. Among them,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was the greatest influence on clinical competence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37.3%. **Conclusion** : The findings showed that in order to enhanc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by increasing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and adversity quotient.

Key words : Adversity, Leadership, Nursing, Stress, Clinical competence

교신저자 : Ye Jean, Kim / (02500) Mangu-ro 82,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3407-8607, +82-10-5674-7111, Fax : +82-2-3407-8619, E-mail : yejean73@shu.ac.kr
접수일 : 2019.08.20. / 수정일 : 2019.08.27. / 게재확정일 : 2019.08.2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건강은 인간의 존엄한 권리로 인식되면서 간호대상자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받고자 하며,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수준 높은 간호를 요구하고 있다[1]. 대형 병원의 병상 수 증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으로 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교육기관이 2008년 132개에서 2012년 202개 기관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입학정원도 11,654명에서 16,959명으로 1.5배 정도 증가하였다[2]. 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신규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임상수행능력의 질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3]. 이에 임상실무능력을 갖춘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임상현장에서는 수준 높은 질적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으로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강조되고 있다[4].

임상실습 수행능력이란 간호 실무에서 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지식, 판단, 기술, 태도 등을 통해 능숙하게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5], 숙련된 임상수행능력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도 임상수행능력 함양을 위해 간호교육의 목표와 학습 성과에 수행능력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성과기반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졸업생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임상수행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6]. 이와 같이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질 관리 중 하나로 셀프리더십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에 따라 그 잠재력에 차이가 있으며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는 개념이다[7].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7].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게 해줌으로써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여[8]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2].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며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9].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실습현장에서 확인하고, 간호대상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임상실습 교육환경이나 대인관계, 환자와의 갈등, 교육과 실무와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과 같은 경험을 포함한다[2]. 현재의 간호교육 과정에서는 여러 요인들로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고[10],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사회 심리적 요인인 역경지수(Adversity Quotient, AQ)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1].

역경지수는 조직 적응과정 중 역경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으로 조직 내 적응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적 속성이며,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과 과정을 나타낸다[12]. 간호사의 사회심리적인 어려움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무 만족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직에 대한 태도, 이직의도 및 이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자만족도 저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3]. 그럼에도 역경지수(Adversity Quotient, AQ)에 관한 국내 연구는 고등학생, 대학생, 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업, 진로 및 취업영역에서의 위기대처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있을 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문영역에서의 조직적응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교수 효율성, 셀프리더십,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등 다양한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2].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었으나 예비간호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조직 내 적응여부, 역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알 수 있는 역경지수와 임상실습 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역경지수와 임상실습 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임상실습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역경지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역경지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역경지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S특별시 일개 대학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자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루어졌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모든 개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alpha=.05$, 효과크기(effect size) 0.3, 검정력(power) 0.95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134명이었다. 중도탈락을 고려하여 대상자 2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08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설문지의 내용이 불충분한 24명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최종 대상자는 총 184명(90%)이었다.

3. 연구 도구

1) 역경지수

Stoltz가 개발한 도구를 An[15] 등이 번역·수정·보완한 도구 AQP(Adversity Quotient Profile)를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세부영역은 Control, Origin & Ownership, Reach, Endurance(CO_2 RE)이고, 영역별 문항 수는 각각 5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합산 점수의 2배수로 200점이다. 점수에 따른 해석은 59점 이하는 역경에 대해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60～94점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95～134점은 무난하게 역경에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된 부담감으로 고통을 지니고 있는 경우, 135～165점은 역경에 대처하여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경우, 166～200점은 역경에 대해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경우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온라인 버전으로 개발된 8.1 version의 Cronbach's α=.91이었고, An[15]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다.

2) 셀프리더십

Manz의 SLQ(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Kim이 번안한 30문항의 도구를 Kim과 Yi[16]가 대학생에 맞게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행동적 전략 9문항, 인지적 전략 14문항으로 총 23개 문항이다.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Yi[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1이었다.

3) 임상실습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Kim과 Lee[17]가 이숙자, 최현영, Beck과 Sriavastava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실습교육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실습업무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으로 5개 영역이며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Lee[17] 등의 연구(2005)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89이었다.

4) 임상실습 수행능력

본 연구에서는 Yang과 Park[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과정, 간호중재, 사회·심리적 간호, 교육, 관찰·모니터, 기본간호 등 6개 영역이며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ang과 Park[18] 등의 연구(2006)에서 Cronbach's α=.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α=.92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수행능력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ANOVA 분석 후 평균비교는 사후검정 S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임상수행능력과 관련요인인 역경지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관련요인 간의 관계와 다중공선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 후 회귀가정으로 검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184명 중 여학생이 153명(83.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은 22~23세가 98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학생이 114명(62.0%)으로 나타났다. 3학년 96명(52.2%), 4학년 88명(47.8%)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 75명(40.8%)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3.5~4.0(4.5 만점)이 83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3.0 이하가 17명(9.2%)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보통' 84명(45.7%), '만족' 69명(37.5%)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는 '원만함'이 143명(7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일반적 특성 가운데 학년(F=14.22, p=.001),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F=2.53, p=.031), 전공만족도(F=5.47, p=.001), 임상실습 만족도(F=14.12, p=.001), 대인관계(F=4.41,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관련 요인의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수행능력 정도는 평균 3.51점이었다. 관련 요인들의 점수를 보면 역경지수가 3.35점, 셀프리더십 3.60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0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the Degree of Clinical Competence (*N*=184)

Variables	Category	n	%	M±SD	t or F (*p*)
Sex	Male	31	16.8	3.57±.57	0.63 (.428)
	Female	153	83.2	3.49±.46	
Age	20~21	44	23.9	3.60±.51	0.98 (.427)
	22~23	98	53.3	3.47±.45	
	24~25	21	11.4	3.43±.54	
	26~27	11	6.0	3.51±.38	
	≥28	10	5.4	3.66±.56	
Religion	Christianity	41	22.3	3.57±.47	1.82 (.144)
	Catholic	26	14.1	3.59±.45	
	Buddhist	3	1.6	3.98±.88	
	Lack of religion	114	62.0	3.46±.47	
Grade	Grade 3	96	52.2	3.38±.43	14.22 (.001)
	Grade 4	88	47.8	3.64±.50	
Entering motivation	Personal opinion[a]	87	47.3	3.53±.41	2.53 (.031) *a>b
	Suggest of family or friends[a]	46	25.0	3.51±.52	
	Employments[a]	37	20.1	3.49±.49	
	Overseas advancement[a]	4	2.2	3.13±.23	
	ect[a]	7	3.8	3.26±.73	
	Considering aptitude[b]	3	1.6	4.28±.56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Very high[a]	23	12.5	3.69±.53	5.47 (.001) *a>b
	High[a]	75	40.8	3.61±.45	
	Average[a]	64	34.8	3.39±.43	
	Low[a]	19	10.3	3.39±.42	
	Very low[b]	3	1.6	2.71±.80	
Grade point average	>4.0	15	8.2	3.30±.50	1.57 (.198)
	3.5~4.0	83	45.1	3.55±.48	
	3.0~3.5	69	37.5	3.47±.47	
	3<	17	9.2	3.62±.44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Very high[a]	10	5.4	3.79±.54	14.12 (.001) *a>b
	High[a]	69	37.5	3.75±.41	
	Average[a]	84	45.7	3.35±.41	
	Low[a]	16	8.7	3.36±.44	
	Very low[b]	5	2.7	2.57±.53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45	24.5	3.71±.61	4.41 (.002)
	Good	98	53.3	3.49±.39	
	Moderate	37	20.1	3.30±.43	
	Bad	3	1.6	3.75±.44	
	Very bad	1	0.5	3.30±.	

Table 2. Mean of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Category	M±SD	Minimum~Maximum
Dependent variable	Clinical competence	3.51±.48	1.84~5.00
Independent variable	Adversity Quotient Profile	3.36±.52	1.00~4.75
	Self-leadership	3.60±.51	1.87~5.00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experience	3.01±.54	1.39~4.88

3.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관련 요인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관련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경지수(r=.447), 셀프리더십(r=.467), 임상실습 스트레스(r=-.253)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임상실습 수행능력의 영향요인

임상실습 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실습 수행능력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4.95,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373로 설명력은 37.3%였다.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β=-.29), 역경지수(β=.25), 셀프리더십(β=.19), 학년(β=.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임상실습 만족도가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 요인임이 확인되었다(Table 4).

회귀모형의 진단은 다중 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한 결과 독립 변수 간 상관계수도 0.8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1.800으로 검정통계량(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차한계(Tolerance)와 VIF 값을 이

Table 3. Correlation of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Varieble	Clinical competence	Adversity Quotient Profile	Self-leadership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experience
Clinical competence	1			
Adversity Quotient Profile	.447**	1		
Self-leadership	.467**	.571**	1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experience	-.253**	-.271**	-.222**	1

*p<.05, **p<.01.

Table 4. Factors that Affect Clinical competenc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Adj R^2	F
Constant	2.29	0.40		5.73	.000			
Adversity Quotient Profile	.23	0.07	0.25	3.29	.001	1.60		
Self-leadership	.18	0.07	0.19	2.44	.016	1.72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experience	-.02	0.06	-0.03	-.38	.706	1.31	.373	14.95
Grade	.19	0.06	0.19	3.09	.002	1.08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06	0.04	0.12	1.51	.113	1.66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17	0.05	-0.29	-3.52	.001	1.85		
Interpersonal relationship	-.05	0.04	-0.08	-1.33	.185	1.12		

용하여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향력 분석을 Cook's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84개 중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다. 다음으로 잔차 분석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역경지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수행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51점이었다. 이는 중간보다 높은 점수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Yang과 Park[19]에서의 3.19점 보다 높게 나타나 2학년보다 3, 4학년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3학년이 인지하는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3.38점인데 비하여 4학년은 3.64점으로 임상실습 수행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3학년보다 4학년이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임상실습 시간에 비례하여 경험이 많아지고, 실습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Han과 Park[20]에서 임상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이 증가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성적이 3.5 이상과 3.5 이하에서는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적에 따라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성적 산출 과정에 있어서 총 학점가운데 임상실습과목의 학점보다는 기타 전공 및 교양과목의 학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임상실습과목의 성적과 임상실습 수행능력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으며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β=-.249).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 직무만족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Jeong[21]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Ju[22]와도 유사한 결과로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를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23]. 특히 프리셉터십 적용을 통해 기존의 관찰적인 실습이 아닌 참여적인 실습을 할 때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를 토대로[24] 프리셉터십을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현장실습 기관과 협조를 통해 프리셉터십을 포함한 효과적인 임상실습이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포함된 다양한 교육성과 지표들을 다루는 포괄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25]. 현재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 업무강도는 간호 대학생을 위한 프리셉터십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간호대학생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간호행위의 범위도 분명치 않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조정 되어야 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도 학생들을 교육하고 간호에 참여시키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한다. 이는 간호 대학생이 신규간호사로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직율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26].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이 각각 상황에 맞게 학생이 최대한 간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리셉터십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과 임상현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간호 대학생들이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역경지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β=.249). 역경지수는 5점 만점에 3.36점으로 역경지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상실습 기간 동안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한 간호대학생일수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역경지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임상실습 시 발생하는 과중한 업무와 동시다발적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 역경지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역경지수가 낮은 학생을 선별하여,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끝까지 도전하는 목표의식과 성취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11]. 뿐만 아니라 역경지수의 하부영역별 점수분포를 분석하고 역경 대처 유형을 분류하여 각 영역에 맞는 극복 전략을 제시하는 훈련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대한 관련성을 연구하였지만, 역경지수에 관한 연구는 국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을 위한 연구가 있을 뿐[15]이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경지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역경지수와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경지수와 관련된 추후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세 번째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β=.196)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셀프리더십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Park[2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임상실습 기간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함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향상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적 특성으로 누구든지 학습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25]. 뿐만 아니라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Chung [27]은 학습관련 자기 주도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7].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셀프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셀프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 수행 과정에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25]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역경지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관련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경지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 역경지수, 셀프리더십, 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임상실습 만족도가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개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역경지수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추가 연구 시 역경지수를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시 임상실습 만족도와 역경지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프리셉터십을 포함한 체계적인 실습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과 임상현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간호 대학생

들이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과 임상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의료 선진국의 프리셉터십을 포함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Lee SH. Emergency department nurses' recognition of and educational needs for forensics nursing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3; 24(5):299-508.
2. Seo BM, Park HJ.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4;8(4):149-161.
3. Son YH, Kang HS, Park YS, Han HJ, Kwon SB, Lim NY, et al. Comparison of student nurses graduating from a junior college or a university on observation and performance of nursing rol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6; 13(2):172-181.
4. Jo MY. An analysis of research on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2):239-248.
5. Hur HK, Roh YS. Effects of a simulation based clinical reasoning practice program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3;25(5):574-584.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ccreditation manual with interpretive guidelines for four-year nursing programs [Internet].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cited 2017 August 4] Available from: http://kabon.or.kr/kabon02/index04.php
7. Kang YS, Choi YJ, Park DL, Kim, IJ.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0;16(2):143-151.
8. Yang NY, Moon SY.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1;17(2):216-225.
9. Kim GM.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2015;3(1):73-87.
10. Kim IS, Jang YK, Park SH, Song S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377-345.
11. An JY, Kim HJ.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adaptation of workers' adversity quot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5;15(9):295-306.
12. Chin PL, Hung, ML.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and turnover intention: the moderating roles of adversity quotient and gende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013;41(5):843-860.
13. Kim, IS.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 out, turn over intention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9; 15(4):515-526.
14. Park WC. Adversity quotient, stress and coping with stress about career of weight lifters in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2008. p.1-50.
15. An JY, Woo HY, Song JH, Kim HJ.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dversity quotient profile for measuring overcoming of adversity among nurs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4):2285-2294.
16. J. S. Yi, K. A. Kim.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012;16(2):19-39.

17.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18. Yang, JJ. Effects of web-based multimedia contents for mechanical ventilator practice on knowledg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06;18(2):231-239.
19. Yang JJ, Park MY.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 Nurs Educ. 2015;16(4):636-647.
20. Han YH, Park YR.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job involvement on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3;19(4):462-469.
21. Jeong EH. Professional self-concept, stress, clinical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5. p.1-77.
22. Ju HJ.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and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8):213-224.
23. Sung MH.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0;17(1):90-98.
24. Hong SJ, Kim EH. Effects of preceptorship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10):6204-6214.
25. Park HS, Han JY.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5;26(3):695-706.
26. Son HM, Lee EH, Cho, KS. Affecting factors of new nurse's intention to retention in hospital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017;24(3):205-216.
27. Chung, ES. The influence of positive thinking,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17;15(2):113-131.
28. Kim JY, Kim MK, Jo J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nd clinin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1):669-678.
29. Kim IS, Jang YK, Park SH, Song S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 337-345.
30. Kim JS.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2012;7(2):94-102.